

대안연 연구소식지

대안연 연구소식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6년 여름 대안연 활동 소식

- 화산도 모임 읽기 2016 여름 소식
- 공공정책센터 2016 여름 소식
- 2016 탐라학당 여름 인문학 강좌 개강 연기 알림

화산도 읽기 모임 2016 여름 소식

지난 4월 꾸려진 화산도 읽기 모임은 격주로 <화산도>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5년 완역 발간된 <화산도>는 제주 4·3을 다룬 대작이다. 또한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는 제주 문학의 저장고이다. 1987년 실천문학사에 <화산도> 제1부가 5권으로 세상에 나온 지 30년 가까이 지난 2015년에야 <화산도>는 먼 길을 돌아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다. <화산도>는 제주 4·3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텍스트이다.

지난 4월 꾸려진 화산도 읽기 모임은 격주로 <화산도>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015년 완역 발간된 <화산도>는 제주 4·3을 다룬 대작이다. 또한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는 제주 문학의 저장고이다. 1987년 실천문학사에 <화산도> 제1부가 5권으로 세상에 나온 지 30년 가까이 지난 2015년에야 <화산도>는 먼 길을 돌아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다. <화산도>는 제주 4·3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텍스트이다.

현직 기자와 사회학,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 장애인 활동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화산도>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



김석범의 작품들

화산도 읽기 모임에서 <화산도>를 선택한 이유도 제주에 살고 있다면, 제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한번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화산도>를 만나면 서 이방근, 남승지, 양준오, 박산봉 등 당대를 살았던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책을 읽어가다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미 지난 6월 열린 학술대회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몇 군데의 <화산도 읽기 모임>이 있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직 성안을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이다. 내년 4월까지 완독을 목표로 더운 여름에 <화산도>를 땀 흘리며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김동현(제주대안연구실장)

공공정책센터 2016 여름 소식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고경하입니다.

현재 공공정책센터(이하 ‘센터’)는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정책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앞으로 센터는 장기간의 목표로 제주도의 행정, 통일/안보, 사회복지, 노동, 농민 분야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제주 정책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과학 학제 간 전문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센터는 연구사업(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과 관련된 연구), 컨설팅(도정 및 의회, 그리고 각종 단체에 정책컨설팅), 대학생 교육, 학술회의 및 정책포럼 개최 그리고 학술지 발간사업 등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 구축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의 장기 목표에 기반하여 먼저 센터에서는 2016년 10월에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제주지역 노동분야 공공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고경하 노무사

**공공정책센터는
2016년 10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제주 지역
노동분야 공공정
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
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소식지 TNINK JEJU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399 4층

전화: 064-757-4843

팩스: 064-757-2711

전자 메일: deanjeju09@hanmail.net

홈페이지: <http://jejuin.org>

<http://cafe.daum.net/tamrahakdang>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홈페이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탐라학당 홈페이지

탐라학당 온라인 강좌 한 컷

맹자 : 인간의 품격과 제왕의 길 - [양혜왕 상1]

【梁惠王 上 1】孟子見梁惠王。王曰 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王曰‘何以利吾國’ 大夫曰‘何以利吾家’ 士庶人曰‘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萬乘之國弑其君者，必千乘之家，千乘之國弑其君者，必百乘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為不多矣。苟為後義而先利，不奪不饜。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맹자가 양혜왕을 알현하였다. 왕이 말했다: “늙은이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내방해주시니, 또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利)을 말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우리가문을 이롭게 할까 말할 것이고, 사서인들은 어떻게 나의 몸을 이롭게 할까 말할 것입니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다투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자기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가문이고, 천승의 나라에서 자기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가문일 것입니다. 만승 중에서 천승을 취하고, 천승 중에서 백승을 취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차하게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로움을 앞세운다면 빼앗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질면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았고, 의로우면서 자기 임금을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았습니까. 왕께서도 또한 인의(仁義)를 말할 따름이지, 하

2016 탐라학당 여름 인문학 강좌
개강 연기 알림

양운모의 영화로 세상보기: 영화와 신화

사정상 탐라학당과 강사님의 협의하여
여름 인문학 강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개강합니다.

- 다 음 -

변경 개강 일시: 2016년 8월 23일(화) 저녁 7:00

(기존 개강 일시: 2016년 7월 19일(화) 오전 10:00)

양운모의 영화로 세상보기
영화와 신화

성공하는 영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영화, 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영화 한 편에
녹아있는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을 재밌게 리터러시, 그런 바탕 위에서 영상적
사고의 체계를 세우고 질문을 던지는 서사의 과정을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1강 액션어드벤처 영화: <7인의 사무라이> - 신화적 구조와 사회성과 현실주의	제4강 드라마 영화: <시민 케인> - 신화적 구조와 통시성
제2강 서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 신화적 구조와 거부의 몸짓	제5강 로맨스 영화: <길> - 신화적 구조와 구원성
제3강 전쟁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 - 신화적 구조와 평화	제6강 코미디 영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 신화적 구조와 여성의 자기발전